

제주, 복지포교 약진

‘제주섬 꼬라 순례’ 법인화 추진... 불교위상 강화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사찰을 참배하며 수행하는 '제주섬 꼬라'가 큰 인기가 있다.

제주 불교의 주요 이슈는 타 종교단체에 비해 열세였던 불교계 복지시설의 약진과 도내 불교계의 법인 등록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운영되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88개소 가운데 불교 관련 시설은 1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이웃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이웃종교에 비해 뒤떨어졌던 제주도내 불교복지현황이 최근 약진을 보이고 있다.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는 2009년 12월 도내 최초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자광원을 개원했다. 이후 서귀포시가 지

원하는 푸드마켓사업의 위탁경영자로 선정되는 등 불교복지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약천사는 올해 8월부터 남원읍 위미리에 조성되는 사회복지법인 구도원 산하 노인전문요양시설 자미성을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또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불교복지 및 문화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다.

제주태고복지재단(대표이사 범담)은 2010년 11월 노인복지시설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을 열었다. 이곳은 제주지역의 첫 번째 교계 운영 노인복지시설인 동시에 약천사가 운영하는 자광원에

이른 두 번째 교계 복지시설이다. 이 밖에 제주태고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을 등록해 미타요양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참여의 폭을 넓혀 가면서 도내 불교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노인복지관 개관이 제주 지역 불교복지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겉기 명상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섬 꼬라 순례'도 법인 등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섬 꼬라 순례 임원진들은 대외적 활동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 등록을 통해 전국의 불자들을 제주섬 꼬라 순례로 이끌 계획이다.

'성스러운 산이나 탐을 시계바늘 방향으로 도는 탐돌이'를 뜻하는 티베트어 '꼬라'는 순례자들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사찰을 참배하며 참 나를 찾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5월 3일자 제주불교신문은 "그동안 제주섬 꼬라 순례는 대외적인 활동 및 사업에 적지 않은 활동 동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인 등록을 통해 불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꼬라 순례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불교전반에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나은 기자

개신교 섬포교 잠식

섬불교포교단 발족대응... 매달 낙도포교 활동



2010년 1월 섬불교 포교단이 암태도에서 주최한 '노만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에 참석한 지역 어르신들.

현재 우리나라 400여 유인도에는 600여 교회가 분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찰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

이웃 종교는 불교와 달리 섬포교 활동에 적극적이다. 1987년부터 '한국의 섬선교회'를 설립해 교회가 없는 섬지역 선교를 위해 10여 척의 선교선(방주호)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이웃종교의 섬포교 잠식현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인구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는 9곳의 교회와 1곳의 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흥사 말사인 노만사가 섬주민들에게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교회가 들어서면서 신앙형태가 급변했다. 각계전투식으로 파고드는 이웃종교의 선교는 순식간에 종교 지형도를 바꿔버렸다.

최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3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센병(나병)환자 강제 수용소로, 전 전체가 국립소록도병원인 작은 섬이다.

국내의 한센인 1만 3300여 명 가운데 585명이 거주하는 소록도에는 개신교 교회 7곳, 가톨릭 성당 2곳, 원불교 교당 1곳 등 10곳의 종교단체가 한센인들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교계 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가운데 불교도 한국의 섬불교 포교단이 조직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섬포교에 나섰다.

광주지역 10여 개 신행단체들로 결성된 섬불교 포교단은 2010년 1월 31일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노만사와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축제를 펼치면서 본격적인 낙도(落島) 포교에 나섰다.

이들은 신안 암태도를 시작으로 매달 낙도를 찾아 의료 및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섬포교단은 2010년 7월 19일 광주·전남 포교사단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길상사 주지 도제 스님을 단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은 섬포교단에 포교기금 700만원을 책정하고 지속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도제 스님은 "해방 이후 한국의 섬에서 불교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종교에 밀리고 말았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의 섬을 불국토화 하는데 불자들이 힘을 모아 헌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섬포교단은 포교원에서 후원한 기금을 바탕으로 '한국의 섬불교 현황조사'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특별기고〉 이재연 사무국장(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섬불교포교단 실무위원)

섬포교,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294개 유인도에 교회 657개 불교는 10여개 사찰만 유지

근래에 섬이 주목 받고 있다. 마지막 남은 청정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섬에도 불교는 있다. 예전에는 그랬다. 그렇지만 요즘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의 섬은 3198개이며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65개이다. 특히 한국의 섬 가운데 90%가 서남 해안권 전라도에 산재해 있다. 해방이후 기독교는 섬 지역 선교에 적극 나서 현재 294개 유인도에 657개의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반면에 불교는 10여 사찰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육지에서 나고 자란 나는 섬 주민들의 성향을 잘 모른다. 섬포교에 나선 이들이 대

부분이 그렇다. 외딴섬에서 높은 파도와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불편한 생활환경을 감내하기까지는 육지 사람과는 달리 강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예로부터 거친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섬은 육지에 비해 신앙심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섬 지역 불교는 타종교에 밀려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이유로 남도 땅 불자들이 섬불교 포교단을 구성해 섬을 찾고 있다.

2010년 1월 말,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호남불교문화원 등 지역 신행단체가 뜻을 모아 섬포교에 나섰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을 섬포교의 날로 정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전념의 길을 출발했다.

섬포교단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신안군

암태도에 자리하고 있는 노만사였다. 큰봉산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노만사를 찾기에 길은 가파르고 교통편도 좋지 못한 실정이었다. 농촌이나 섬에 들어가 보면 고령화 시대를 실감한다. 젊은 층의 신도를 만나보기 어렵다.

노만사는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약수가 나오는 천혜의 도량으로 주지 범도 스님이 조석예불과 기도정진으로 열심이건만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에는 한계가 있는 듯했다. 한의사, 미용사를 비롯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매달 노만사를 찾았으나 지역민의 동참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암태도에는 10여 개의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농번기에 목자들이 직접 얼음과자를 들고 나타나 농사일을 거들었다고 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품앗이가 이뤄지면서 불교인들이 위축되고 교회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교는 봉사'라는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섬불교 포교단이 일회성 행사보다 꾸준히 섬을 찾아 부처님의 명훈가피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자 지역 불자들의 어께도 한층 올라갔다.

어르신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일러주고 염불을 강요하기보다는 육지에서 준비해간 음식으로 점심을 공양하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며 대화도 나누었다. 이미 노년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픈 어깨를 주무르며 정을 쌓아갔다. 그리고 포교사들이 결성한 예술공연팀은 지역 어르신과 즐거운 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만나는 횃수가 늘어가며 지역 어르신들과의 정은 두터워져 갔다. 1년을 보내고 보니 포교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다. 개신교의 경우 방주호라고 명명한 선교용 배가 20여 척 가까이 운행되고 있건만, 사찰은 승합차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지나해 말 섬불교 포교단은 '한국의 섬,

섬포교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도제 스님(광주전남법단장)을 단장으로 모시고 조직을 확대했다. 섬포교 활성화와 체계적 활동을 위해서다.

섬포교단이 활동하는 곳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가장 급한 것은 차량이다. 자원봉사자와 장비를 이동하는데 필수인 차량을 구하는데 급급해한다. 특히 섬포교 현장에서 지역민을 운송해야 하건만 차량이 부족해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곤 한다.

섬포교를 위해서는 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섬포교를 종단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특히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노인복지에 대한 직접서비스로 말벗, 상담, 가족기능 제공, 취미활동지도, 외출보조, 질병간호 등이 있다.

물론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며 동화되는 포교를 시행해야 한다. 종교의 가르침을 최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에 무게를 두고 꾸준한 섬불교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꼭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불자라는 확고한 신심과 의지로 '나누면 행복해진다'라는 사명감만 있다면 누구나 환영한다.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기까지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불교는 인연을 강조한다. 자주 만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부처의 씨앗을 심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았다. 함께 노력하다보면 변함없는 섬포교 실천 수행으로 외딴섬에서 부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기술어저가는 섬 지역 사찰의 기세를 다시 살려 예로부터 불교와 융합사상이 대표적인 전통신앙이 자리 잡아 이교특락하기를 간절히 발원해본다. 이나은 기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법화종현(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현)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궁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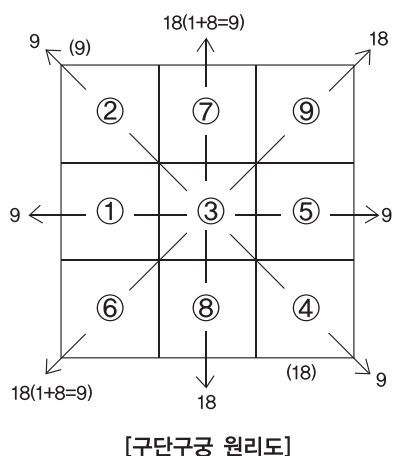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강의 일정표 ***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회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구단구궁 원리도]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법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6개월]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지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온 종사명만 점안의식 시달릴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 수,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찰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요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토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0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피명문 · 오지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 금, 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개론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